

5년간 반도체에 340조 투입… 바이오의약품 세계 1위 박차

산업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를 정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인 만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6대 핵심산업에 민간투자 550조원 집중 투자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6개 핵심 산업에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선도국화를 지원한다.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향후 5년간 340조원 투자가 목표다. 신규 국가산단을 포함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전력, 차량, 인공지능 등 3대 유망 반도체 연구개발에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이 목표다. 2026년까지 62조원을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에 나선다. 민간투자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선제 준비와 유기발광다이오

〈산업별 육성전략 핵심내용〉

/자료=산업부

첨단산업	비전	세부과제
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신규 국가산단 포함)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투자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
이차전지	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간 20조원 투자(~’30년)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 지원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K-NIBRT 등 시설 활용)
미래차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미래차전환특별법’ 제정
로봇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2조원 투자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 민간투자 4년간 디스플레이에 62조 투입 국가전략기술 지정, 유망분야 실증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5개 공장 구축, 소부장 펩리스 유치 매출 1조 펩리스 10개 육성 하기로

드(OLED) 기술력 제고도 추진한다. 2032년까지 차세대기술 선도인력 9000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에는 2026년까지 39조원을 투자, 2030년까지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 60GWh(기가와트시) 이상 확보하고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도 시작한다.

◆바이오·미래차·로봇까지 글로벌 패권 목표

바이오 분야는 2026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조역량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밀착 지원과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탄소규제에 대응한 바이오 플라스틱, 연료 등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래차는 2026년까지 95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 2027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입해 센서,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기술 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집현동 비전세미콘을 방문, 반도체 플라스마 세정과 오븐시스템 등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보를 위해 민간과 함께 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개선과 실증을 추진해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용접, 조리, 돌봄로봇 등 일자리 미스매치·위험 분야 신시장 창출에도 착수한다.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투자

정부는 6대 첨단산업 육성방안에는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기흥 등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펩리스 밸리와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클러스터에서 기업과 연구소·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이 추진되고 펩리스가 개발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펩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펩리스 1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전력,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조2000억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 민간 투자와 2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과 협력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300조 민간투자로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尹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새로 조성 중요한속도… 모든노력 다 할 것”

윤석열대통령이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첨단산업 6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에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우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펩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고, 우주·미래차·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지방균형발전기조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

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교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기독교탄신일(12월25일)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기독교탄신일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